

올림픽, 코로나 여파 사상 첫 연기... 손, 빅리그 통산 100골

<흥민>

체육기자가 뽑은 '2020 스포츠 10대 뉴스'

1 도쿄올림픽 내년 개최

3월 24일 밤, 대회 시작 122일을 앞두고 2020 도쿄하계올림픽 개막 카운트다운 시계가 멈췄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던 시기에 IOC와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지만 선수, 올림픽 참가자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유럽과 미국에서 쇄도했다.

급기야 캐나다와 호주가 대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IOC와 일본 정부가 이날 1년 연기에 전격합의했다.

1896년 근대 올림픽 태동 이래 올림픽 연기는 124년 만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다. 앞서 동하계올림픽은 1·2차 세계대전으로 5번 취소됐지만 전쟁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열리지 않은 것도 첫 사례다.

연기된 올림픽은 2020년 도쿄올림픽 명칭 그대로 2021년 7월 23일 개막한다. 4년 주기로 짝수 해에 열리던 하계올림픽은 내년엔 처음으로 홀수 해에 치러진다.

2 최속현 '인권 개선' 도화선

수년간 폭력에 시달리던 고(故) 최속현 선수는 생애 마지막 4개월 동안 경주시청, 검찰, 경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국가위원회 등에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6월 26일에 세상을 떠났다.

최속현 선수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더디게 움직이던 관계 기관은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에야 속도를 냈다.

주요 기해 혐의자 4명 규류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과 팀 닥터라고 불리던 안주현 운동처방사, 장윤정, 김도환이 구속됐고 재판을 받고 있다.

3 손흥민 EPL 10-10 클럽

2020년은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에게 '대기록 작성'의 한 해로 기억에 남게 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은 올해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남겼다. 손흥민은 지난 10월 5일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4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골 1 도움으로

토트넘의 6-1 대승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이날 멀티골로 유럽 빅리그 정규리그에서 299경기 동안 100골을 채웠다. 이와 함께 '한국 축구의 레전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작성했던 한국인 역대 빅리그 정규리그 최다 득점(98골)을 훌쩍 뛰어넘었다.

손흥민은 2019-2020시즌이 펼쳐지던 지난 7월에는 아시아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EPL 무대에서 '10-10클럽(10골·10도움)'도 가입했다. 특히 손흥민은 EPL에서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식지 않는 득점 감각을 이어가고 있다.

4 NC, 창단 9년만에 KS 우승

프로야구 제9구단 NC 다이노스가 2011년 창단한 지 9년 만에 KBO리그 정상에 올랐다.

83승 6무 55패로 창단 첫 정규시즌 우승을 달성한 NC는 한국시리즈에서도 두산 베어스를 4승 2패로 제압하며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NC는 2016년에도 플레이오프를 거쳐 한국시리즈에 올랐지만, 두산에 4전 전패로 무너졌다. 2018년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달랐다.

NC 합류 2년 차에 주장을 맡은 양의지는 한국시리즈에서 타율 0.318(22타수 7안타)에 홈런 1개, 3타점 등을 기록하고, 투수들과 완벽한 호흡으로 4~5차전 영봉승을 합작하며 MVP에 올랐다.

'집행력' 세리머니는 국내는 물론 야구 본고장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번 우승으로 구단주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이동욱 NC 감독의 '데이터 야구'와 인간적인 리더십도 주목을 받았다.

5 류현진·김광현 ML 맹활약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새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활약하던 류현진은 토론토와 4년 8000만 달러의 대형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하고 이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메이저리그 개막이 7월로 늦춰졌고 시즌도 60경기로 단축됐다. 캐나다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떠돌이 신세가 되기도 했다.

류현진은 이런 악재 속에서도 12경기에서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를 기록하며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끌었다.

'MLB 루키' 김광현도 역경을 딛고 대단한 활약을 펼쳤다. 우여곡절 끝에 선발 자리를 꿰찬 김광현은 정규시즌 8경기에서 3승 1세이브 평균자책점 1.62를 기록했다. 포스트시즌에선 팀 1선발로 등판했다.

6 전북 '더블'·이동국 은퇴

전북 현대와 '라이언 킹' 이동국(41)은 12년째 이어가던 동행을 '더블'(2개 대회 우승)로 화려하게 끝맺었다.

전북의 올 시즌 우승 전망은 밝지 않아 보였다. 일부 주축 선수들의 이적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했지만 전북의 '우승 DNA'가 빛을 발했다. 최고참 이동국이 구심점이었다.

전북에 입단한 2009년 첫 정규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이동국은 전북에 8번째 우승컵을 안기면서 성대한 은퇴식을 했다.

전북은 실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이동국 덕에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일화가 작성한 K리그 최다 우승(7회) 기록을 넘어 '역대 최강팀'으로 자리 잡았다. K리그 첫 4연패 금지법도 세웠다.

전북은 FA컵에서도 울산을 제압하며 국내 프로축구 사상 두 번째 '더블'을 달성했다.

이동국은 FA컵 결승 2차전에 교체 출전해 자신의 첫 FA컵 우승을 경험하며 '커리어 트래블'(AFC 챔피언스리그·K리그·FA컵 우승)을 이뤘다.

7 '배구 여제' 김연경 국내 복귀

한국 여자배구가 배출한 최고 스타인 김연경(32·흥국생명)이 11년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왔다. 김연경은 2009년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터키와 중국 리그에서 활약하며 세계 최고 연봉을 받는 공격수로 군림했다.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와 2020 도쿄올림픽 메달 꿈이 그를 국내 귀환으로 이끌었다.

거액의 몸값이 협상 변수로 꼽혔지만 김연경은 팀과 후배들을 위해 스스로 몸값을 대폭 낮춰 1년 연봉 3억 5000만원에 파격 계약했다.

김연경이 복귀하면서 최고의 흥행가드가 됐다. 김연경이 출전한 9월 5일 컵대회 결승전은 이례적으로 지상파가 생중계했고, 시청률 3%(프로야구 개막전 시청률 1.5%)를 찍었다.

8 임성재, 골프 마스터스 준우승

남자 골프의 간판 임성재(22)가 2020년에도 한국 골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만한 업적들을 남겼다.

2019년 아시아 국제 선수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왕에 선정된 임성재는 올해 PGA 투어 첫 우승과 아시아 국제 선수 최초의 마스터스 준우승 쾌거를 이뤘다.

임성재는 3월 열린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최종 합계 6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PGA 투어가 재개된 6월 이후에도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과 윈덤 챔피언십 등에서 '톱10' 성적을 내며 2년 연속 PGA 투어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11월로 미뤄진 '명인 열전' 마스터스에서는 아시아 국제 선수 최초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투어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했다.

9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 개막

2020년은 국내 체육계에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가 막을 올린 해로 기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해왔으나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초 전국에서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이어졌다.

4월 16일 광주시 서구를 끝으로 17개 시도 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245개 지방체육회가 모두 민선 체육회장을 뽑았다.

민선 체육회장 시대의 시작은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장 겸직 시절과 달리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10 男축구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올해 1월 22일 태국에서 열린 호주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준결승전에서 2-0으로 승리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겸한 대회에서 도쿄행 티켓이 주어지는 3위 안에 들면서,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이미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8회 연속 본선 진출로 이 부문 세계 최다 기록을 보유한 한국은 또 한 번 새 기록을 썼다.

1948년 런던 대회, 1964년 도쿄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본선 진출이다.

준결승에서 도쿄행을 확정된 김학범호는 결승에서 연장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1-0으로 누르고 한국 축구 사상 처음으로 우승 쾌거도 이뤘다.



임성재



손흥민